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2월 17일(주일) 제1176호



사진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

온 누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20일 성탄콘서트 '선물', 21일 광화문 기도집회
24일 캠퍼스별 칸타타, 성탄축하예배, 축하행사
25일 성탄축하예배, CGNTV 드라마 '다시 봄' 상영

온 누리와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 12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서빙고 수요일양예배가 주최하는 2017 성탄콘서트 '선물'이 막 오른다. 경배와 찬양은 12월 21일(목)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오직, 말씀으로 나부터 회개와 기도'를 주제로 기도집회를 개최한다. 회개의 기도, 회개와 회복의 기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말씀 회복 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 등을 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이브와 성탄절에는 각 캠퍼스별로 칸타타와 성탄축하예배가 이어진다. 12월 24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주찬양 찬양사역팀, 양재 온누리교회 1부~4부 예배에서는 뮤지컬찬양사역팀이 칸타타를 선보인다. 수원 1~4부, 대전 1~2부, 남양주 1~3부, 인천 1~3부, 강동 1~3부 예배에서도 칸타타를 한다. 부천은 저녁 7시 예배에서 차세대가 특순을 하고, 평택은 오후 3시 성탄전야콘서트, 양지는 저녁 7시 본당에서 성탄전야예

배 및 축하행사가 열린다.

12월 25일에는 성탄축하예배를 드리고, CGNTV가 제작한 드라마 '다시 봄'을 상영한다. 드라마 '다시 봄'은 목사였던 아버지의 사고 이후 교회를 떠났던 주인공 보라(배우 황선희)가 19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서빙고와 양재 성탄축하예배는 오전 9시, 11시 30분에 드리고, 오후 2시에는 CGNTV 드라마 '다시 봄'을 상영한다. 캠퍼스별 성탄축하예배는 부천 오전 9시와 11시 30분, 수원 오전 9시, 11시 30분, 대전 오전 9시 30분, 남양주, 인천, 평택, 강동, 양지 오전 11시에 드린다. 드라마 상영시간은 부천 오전 10시 15분, 수원 오후 2시, 대전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오후 12시 30분, 인천 오전 10시, 평택 오후 1시, 강동

오후 1시 30분, 양지 31일 오후 9시 30분이다. 밤 10시 20분에 CGN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캠퍼스별 상영시간 <표> 참조.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7 성탄축하예배 및
CGNTV 제작 드라마 '다시 봄' 상영 안내

캠퍼스	12월 25일 성탄축하예배	드라마 상영
서빙고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25일 오후 2시
양재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양재역 환승주차장, 일동제약 주차장 이용시 교통운행	25일 오후 2시
부천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25일 오전 10시 15분
수원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25일 오후 2시
대전	오전 9시 30분	25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오전 11시	25일 오후 12시 30분
인천	오전 11시	25일 오전 10시
평택	오전 11시	25일 오후 1시
강동	오전 11시	25일 오후 1시 30분
양지	오전 11시	31일 오후 9시 30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4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0분, 각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시작됐다. 2018년 1월 20일까지 오전 5시 20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해외비전교회에서는 CGNTV를 통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주별 주제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주별 주제는 12월 18~23일 '그리스도와 함께', 12월 25~30일 '그리스도 안에서', 1월 1~6일 '그리스도 아래서', 1월 8~13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1월 15~20일 '그리스도처럼'이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캠퍼스별 특순도 이어진다. 12월 16일 부천, 23일 수원, 26일 강동, 30일 인천, 1월 6일 대전, 13일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특순을 한다. 12월 25일과 1월 1일에는 성탄감사예배와 신년예배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대신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한창이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대학청년부 소속 11개 공동체 청년 1,810여 명이 40개 지역, 75개 단체와 교회를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 지진 피해를 겪은 경상북도 포항 지역 교회 14곳도 방문하고 있다.

대학청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낮은 곳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청년들이 지역 단체 및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웃들을 위로하는 행사다.

기획_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5면 공동체_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간 기차여행 7면 기고_ 크리스마스트리와 대림절 10면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수년째 한국, 중국, 일본의 선교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이가 있다. 강동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다큐감독 이원식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이 감독은 무너져 내리는 삶을 회복하려고 참가했던 예수제자훈련(DTS)에서 '영상선교사'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2년 넘는 제작기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함 속에, 3부작 다큐멘터리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하나님이 주신 꿈 '영상선교사'

기독교 다큐감독 이원식 성도의 삶과 신앙



다큐촬영을 위해 구마모토로 가고 있는 이원식 성도.

기독교 다큐감독 이원식 성도는 한국, 중국, 일본의 선교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성경번역과 선교와 관련된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카메라를 들고 어디든지 달려간다. 이 감독은 3부작 다큐멘터리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를 제작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성경번역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상선교사의 사명

처음부터 기독교 다큐감독이 꿈은 아니었다. 원래 상업영화 감독이 되고자 했다. 영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상업영화 현장에서 조감독으로 일했고, 이후엔 시나리오 작가로 일했다. 그런데 본인의 작품으로 데뷔 할 시기가 되자 첫 영화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첫 영화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찍은 저의 첫 장편영화가 영화 ‘누나’예요.”

영화 ‘누나’는 배우 성유리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다. 상처받은 청소년과 주인공의 회복을 그린 힐링영화이다. 상업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 색채가 짙다.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회복’이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영화를 제작했는데 사실 그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영화를 촬영했는데 기독교 색채가 짙다는 점 때문에 배급하겠

다는 배급사가 나타나지 않았죠. 우여곡절 끝에 한 배급사를 만나 2013년에 영화가 개봉했지만, 배급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어요. 저도 지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은 2015년 개봉한 독립영화 ‘북쪽에서 온 여행자’이다. 탈북자 미혼모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었다. 그 즈음 이 감독의 몸과 마음이 말이 아니었다. 너무 무리한 나머지 완전히 탈진해 버렸다. 지칠 만큼 지쳐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 감독은 영화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제자훈련(DTS)을 받으려 제주도로 향했다.

“하나님께 제 영화를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 중국과 일본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한국, 중국, 일본으로 성경이 들어오는 과정의 은혜와 감동을 영상에 담아내는 사명이었어요.”

은혜는 풍성했지만 현실은 각박했다. 이 감독이 제작하려는 다큐멘터리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자비방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다. 돈을 버는 족족 다큐멘터리 제작에 투자했다. 가족들의 생활비를 들고 중국으로 촬영

을 간 적도 있었다.

“프로듀서인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갔어요. 든든한 중보기도자인 아내 덕분에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

이 감독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카메라에 담는 것마다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감독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는 총 3부작이다. 1부 '코리안 바이블 루트(Korean Bible Route)'는 한글성경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부흥을 통해 이 민족이 어떻게 열방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2부 '일본의 베데스다(Bethesda in Japan)'는 일본의 선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일본을 사랑하시는데 대한 이야기, 3부 '유라시아 철도(Eurasia Railroad)'는 통일한국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함께 유라시아를 관통해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1부와 2부는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이다.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표현은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뜻해요. 백흥준, 서상륜, 이응찬, 이수정, 존 로스, 매킨타이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코틀랜드 선교사 등은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하는데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주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감독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그리스도의 길은 조선 선교 초창기인 140여 년 전 즈음의 일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조선인 이수정이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손에 들고 조선 땅을 밟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에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또 다른 성경이 있었고, 세례 받기를 기다리는 조선 사람들이 있었다.

“1882년 만주에서 첫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인쇄됐어요. 존 로스와 매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이응찬, 서상륜을 비롯한 의주 상인들이 동참했어요. 성경번역에 동참한 의주 상인들은 전도자이자 성경을 파는 매서인이 되어 조선에 성경을 들여왔어요.”

서상륜과 의주 상인들은 전국에서 한글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다. 예배와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조선인들도 70명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세례를 줄 수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없었다. 쇄국 정책으로 서양인과 접촉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살벌한 때였다.

“서상륜은 이 기쁘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만주의 존 로스 선교사에게 전했고 존 로스 선교사는 1885년 3월 8일 영국성서공회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세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세례를 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피력한 것이죠.”

존 로스 선교사가 보낸 편지가 영국에 도착할 즈음,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줄 선교사가 그 반대편 미국으로부터 이미 도착했다.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였다.

“이 사건들을 따로 따로 보면 감동이 덜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례를 기다리던 조선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다큐멘터리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 1부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길도 담겨있다.

“네팔 히말라야 아래에 사는 T부족을 위해 20년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성경 봉헌 예배에 참석했죠. 그런데 온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험한 히말라야의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오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죠.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영화를 배급해 줄 배급사가 정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 1부 '코리안 바이블 루트(Korea Bible Route)'를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내년 여름에는 3부 '유라시아 철도(Eurasia Railroad)' 촬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3부는 통일한국이 유라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함께 촬영을 떠날 분들을 찾고 있어요. 촬영기간은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와 동역자예요. 다큐멘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문의: 010-6246-6586
후원: 우리은행 092-112602-02-701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오시는 이

히브리서 3:1~6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보여주고, 이론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오랫동안 세심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사셨고, 그 예언을 이루심으로 메시아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어떤 민족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실지, 어떤 역사적 상황 속으로 보내실 지를 준비하셨고, 그 준비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육신의 조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후손들이 조상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조상들이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삶을 미리 기념하고, 준비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성경의 초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은 그들의 삶이 위대해서 성경의 주요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주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건물을 지을 때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설계도이고 두 번째는 모형입니다. 설계도와 모형을 통해 장차 지어질 건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미리 맛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모형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실체에 대한 모형이요, 장차 오실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서 구약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당시 천문학자들이 별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 각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왜 기쁨의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왜 B.C.와 A.D.를 구분하는 역사의 중심이 되셨을까요.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나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권면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A.D. 64~68년 경 한 무명 신학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닫고 묵상한 바를 당시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쓰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이 쓰인 것은 예루살렘과 인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믿는 이들은 증가했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라는 위기가 찾아왔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율법, 유대교라는 종교적 체계, 그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삶을 충분하게 지지해 주는 어떤 종교적인 율타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 배교하기

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명의 신학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 무명의 신학자는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70여 번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25번에 걸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 신학자가 히브리서를 통해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겼던 모세와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모세가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는 사상가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로라는 학자는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모세의 율법은 존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당시 유대 서신에 의하면 모세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살인한 이야기는 조작된 것이라고 모세를 미화하고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모세를 위대하게 높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처럼 선지자, 제사장, 정치지도자, 왕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지경까지 인도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구약의 다섯 권을 남겼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를 가장 훌륭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과 삶 속에 형성된 깨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에는 모세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는 누가 더 훌륭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토록 위대했고, 멋졌던 지도자요 선지자로 쓰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사용된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좋은 일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2절).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충성을 통해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광야생활 인도하심에 쓰임 받았고, 충성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신 18:15).

여기서 ‘나 같은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선지자 역할, 지도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충성하셨습니다.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격화하고 그리스도처럼 떠받들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연약한 인간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합니다. 지도자 스스로 본인을 절대화하는 위험도 있지만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조금만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이 있으면 그를 높이 뿐만 아니라 신격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 은퇴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섬기는 일에는 은퇴 없다 ...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사명 완수
경제적 은퇴준비, 영적 리더십과 신앙 유산 전수 병행해야

요즘 우리사회에서 은퇴가 이슈다. 베이비부머(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대)들의 퇴직과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14%)가 된 대한민국에서 은퇴가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공무원 60세, 은행원 58세, 직업군인 58세, 목사 70세, 직장인 55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81세라고 가정하면 직업적 은퇴 이후 적어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총 인생의 4분의 1이나 되는 매우 긴 시간이다. 따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노년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퇴 준비가 필수다. 그런데 당신은 은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당신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의 약 10%를 저금하고, 최종 연봉의 50%를 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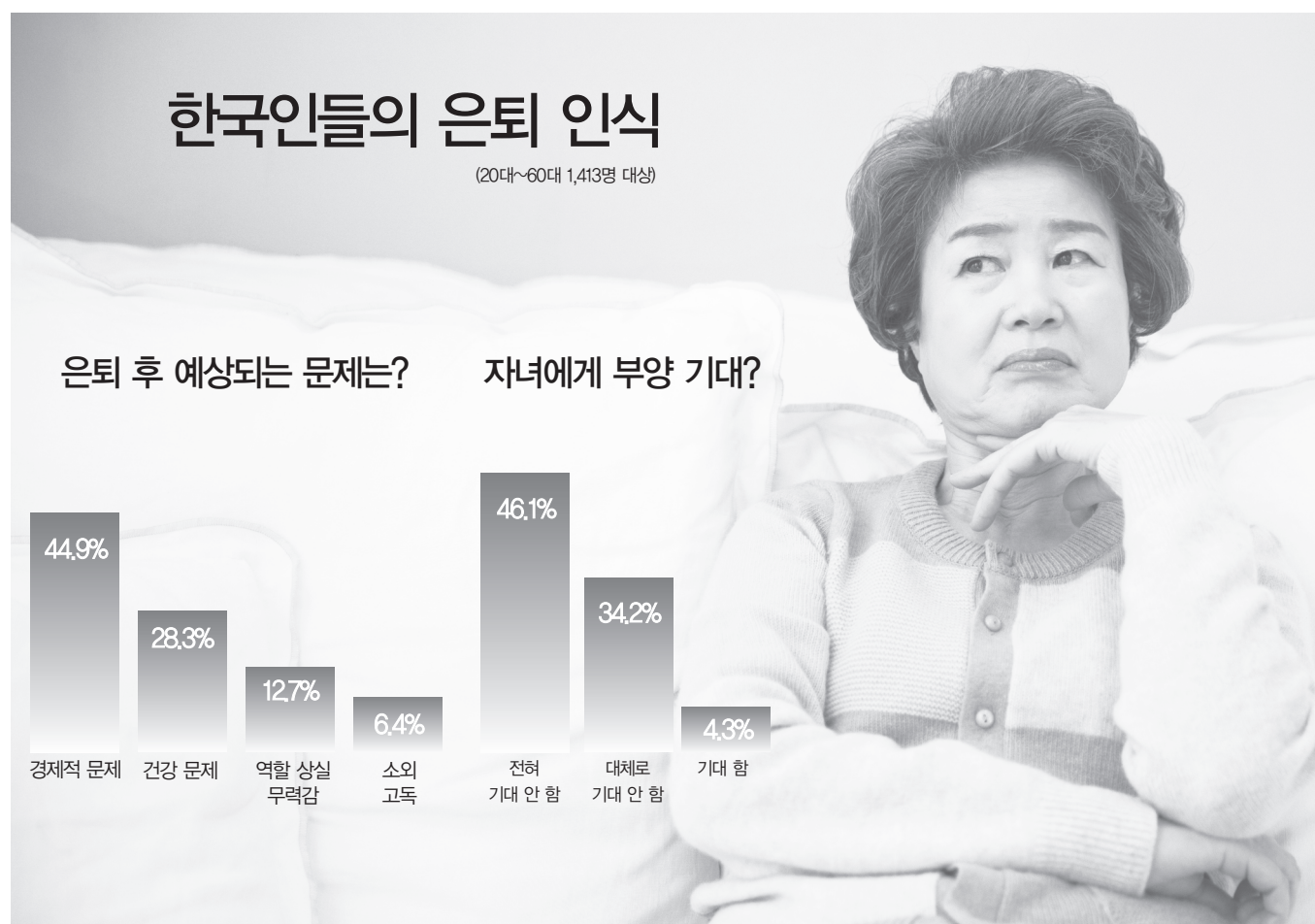
런던 비즈니스스쿨 교수 린다 그래튼이 MBA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답은 ‘80대’였다.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80대까지 지금과 같은 업무 강도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튼 교수는 저서 <100세 인생>에서 연장된 수명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긴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유형자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무형자산(가족, 친구, 건강, 유연함)도 보유해야 한다.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은 100년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은퇴(隱退)의 정의와 의의

은퇴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은퇴(隱退)의 사전적 정의는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냄’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 외에도 법규, 은퇴이론, 은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사건 등으로 은퇴를 정의하기도 한다. 법규에서 정의한 은퇴의 기준은 연령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를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은퇴를 노화이론과 관련해서 설명하기도 한



다. 분리이론, 활동이론, 지속이론이 그것이다. 분리이론은 노인과 사회는 분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은퇴를 통한 사회로부터의 분리는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분리과정은 노인들에게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활동이론은 분리이론과 반대되는 이론이다. 중년기 이후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한다. 지속이론은 개인의 특성으로 노년기 적응과정을 예측하는 이론이다. 개인의 특수한 습관, 성향, 흥미, 소속감 등의 특성들이 은퇴 이후 생활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화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관적 평가(가치관)에 따라서도 은퇴를 정의할 수 있다. 은퇴를 일생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역할상실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은퇴를 생애 중요한 사건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은퇴는 생애 후반기에 발생하는 역할 전환이자 인생의 후기단계에 들어가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또한 은퇴는 중년에서 노년으

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은퇴는 인생 후반기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처럼 은퇴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직업에서의 역할을 그만둔 상태라는 점은 동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은퇴를 인생에서의 은퇴로 동일시한다. 그러나 은퇴는 축구 경기에서의 하프타임과 같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뚫 선수들이 휴식을 가지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뚫 것인지 작전을 세우는 시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퇴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인들의 은퇴 인식

흔히들 ‘은퇴 준비’ 하면 노후에 여유 있게 쓸 재정(돈)부터 생각한다. 이는 전국 20대부터 60대까지 1,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관련 인식 조사(김남원, 2017)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44.9%가 은퇴 이후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건강관련 문제(28.3%), 역할 상실 및

무력감(12.7%), 소외 및 고독(6.4%) 등의 순이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실제 은퇴 준비를 하는 시기도 일치하지 않았다. 40대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35%, 3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 27%, 50대 20% 순이었는데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는 40대 27.8%, 30대는 19.6%에 불과했다. 은퇴준비를 아예 안한다고 답한 비율도 무려 24.3%나 되었다.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후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도, 자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이후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안 함’ 46.1%, ‘대체로 기대 안 함’ 34.2%로 응답자 80.3%가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오’가 87.7%로 압도적이었다. 은퇴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도움을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은퇴 이후 삶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

렇다보니 응답자 38.8%가 재무교육을, 24.4%는 재취업을 원하고 있었다. 은퇴 이후 여가생활(21.8%), 은퇴 후 가정생활(13.9%)을 돕는 상담과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은퇴준비가 해결될 것일까? 아니다. 경제적 은퇴준비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퇴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성경은 돈의 축적과 편안하고 한가한 노후 생활보다 영적인 리더십과 유산을 후세에 잘 전하고 돕는 것을 은퇴의 미덕으로 삼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퇴

성경에는 은퇴라는 말이 없다. 다만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예로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은퇴를 짐작해볼 수 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 오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오십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민 8:24-26).

이는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해서 다시 짓고 그 내부의 집기들을 운반해야 하는 육체적 노동의 한계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하나님은 육체적 노동에서는 은퇴하라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형제들을 돕는 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직업에서 은퇴할 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은퇴가 무엇일까? 성경 인물들을 통해 성경적 은퇴를 정의해 볼 수 있다.

모세는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퇴를 명하셨다. 모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움으로써 리더십과 사명이 다음세대에 이어지도록 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신 31:7).

엘리아 또한 후계자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물려줬다.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죽기 전에 자기 대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다.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왕하 2:14).

요셉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줌으로써 성공적인 은퇴를 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6:16-23).

질병이나 정변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후계자에게 왕권을 이양했지만 웃시아 왕은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나병이 생기자 별궁에 거하며 아들 요담이 왕궁과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했다. 자신이 물러날 때에 깨끗하게 자신의 일을 후계자에게 바르게 넘겨주고 세상을 떠났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부터 여호와께의 전에 나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그런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그릇된 자식농사를 탓하며 은퇴하기를 원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은퇴준비, 이렇게 하라

돈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려라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인간관계의 균형이 중요하다

죽는 순간까지 일하고 놀아라

매일 감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라

하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창 50:24-26).

요셉은 삶을 마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상실해 방황하지 않도록 방향을 재설정해준 것이다.

웃시아 왕도 성공적인 은퇴를 한 인물이다. 그는 역할 이행에 성공했다.

“웃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되매 여호와께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니”(대하

(삼상 8:5).

백성들의 은퇴 압박으로 불쾌해진 사무엘은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셨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6).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은퇴의 변을 담아 설교했다(삼상 12:1-25).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아래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엄하게 가르침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삼상 12:23).

사무엘의 은퇴는 아쉬움과 불쾌함을 뒤로 하고 당부와 권면, 중보기도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아름다운 은퇴를 위하여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세주임을 알고 노래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떠맡을 역할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자신이 떠날 때를 적절히 알고 죽음을 흔쾌히 수용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눅 2:25-31).

시므온의 모습은 아름다운 은퇴가 아닐 수 없다. 생애 여한이 없는 시므온의 후회 없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부름 받을 때 내뱉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직업에서의 은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은퇴란 없다.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은퇴에 대한 소회(所懷)

나는 올해 12월부터 시무장로를 은퇴하고 사역장로가 되었다. 2000년 12월 25일 장로장립식이 있었으니 꼭 17년 만에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을 모두 내려놓은 것이다. 사실 아직은 내가 은퇴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고, 다만 은퇴할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는 정도만 느끼고 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은퇴하신 사역장로님들이 약 130~140명 정도 계신다. 나는 대선배 사역장로님들 앞에서 그야말로 새내기 막내인 셈이다. 그렇기에 선배 장로님들을 잘 섬기며 교제하고, 또 다른 사역으로 계속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한다.

시무장로 직분은 내려놓지만, 교회 생활에 은퇴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건강이 허락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한 분야와 경험해보지 않은 사역들이 너무 많다. 사역장로들을 필요로 하는 사역이 무진할 것이기에 ‘지금부터’를 외치며 선배님들을 모시고 몇

진 사역장으로 사역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토요일과 주일에 사역이 집중되다보니 집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정사역에 충실해 볼까 한다. 아내와 함께 늘 그려왔던 귀촌생활로 여생을 지내볼 생각도 계획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직장 and 교회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역할 상실로 인한 허탈감에 우울하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나는 그런저런 생각이 없고, 불안하지도 않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둘러보고 찾다보면 결국 할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내 성격과 딱 들어맞아, 인간적인 염려로 해결될 일은 없다는 낙관적 인생관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후배 장로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 교회사역을 담당하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다. 사역에 몰두하다보면 사역에 대한 애정과 나름의 방법에 자부심이 생긴다. 이때 ‘나’ 아니면 사역이 부진할 것 같은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와 지시를 한다거나 아집을 부리게 되고, 팀원 간 격려와 칭찬에 인색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사역은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많은 교인들과 선후배 장로들에게 “OO 장로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라는 인사를 받는 자리에 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돌이켜보면 나는 업무수행이나 위기관리 대처능력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매사에 제멋대로인지라 같이 사역하는 팀원들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기에 재미있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함께해온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나는 지금 또 다른 꿈에 부풀어있다. 훌륭한 선배 장로님들과 또 다른 의미의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된 것에 무한 감사한 마음이다. 아무쪼록 건강이 다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싶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생각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강찬석 장로
(서대문공동체)

특집 2018년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의 눈부신 변화

NGO 더멋진세상, ECD센터, 자연농업 등 전수

2018년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온누리교회 선교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는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의 열매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고대선 코디
(NGO 더멋진세상)

2011년 12월 설립된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이하 더멋진세상)은 세계 속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가지고 가난과 질병, 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더멋진세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더 멋진 마을을 조성하고,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약품과 모기장, 영양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긴급구호 현장에 달려가 구호품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도 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 더 좋은 마을을 세우고, 약품과 구호품을 나누는 일은 사실 더멋진세상 존재 목적의 10%에 불과하다. 빙산의 90%가 물속에 잠겨 쉽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더멋진세상의 진짜 설립목적은 사랑과 섬김과 희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멋진세상의 최종 지향점은 성경적 가치로 변화된 사람들과 공동체를 남기는 것이다.

더멋진세상의 사역지는 대부분 복음의 불모지다. 복음을 적대적으로 핍박하거나 거부하는 지역이 많다. 더멋진세상은 아무런 대가없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 불모지 같았던 곳에 예배가 생기기도 했고, 폐허가 된 땅에 교회가 지어지고 세례자가 나왔다. 또한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11개국 13개 마을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 최빈국 중 하나인 르완다의 응호망과 마을은 더멋진세상이 지난 6년 동안 보건, 농업, 양계, 교육, 식수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섬기고 있는 지역이다.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생명 살리고, 복음도 전하고

지난 2012년, 더멋진세상 리서치팀이 르완다 지방 정부의 추천으로 처음 방문한 응호망과 마을의 첫인상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주민들의 일일 소득이 1달러 미만으로 하루 1끼 정도 밖에 먹지 못하고 있었다. 식수가 없어서 언덕 아래 2km를 걸어 내려가 호수에서

물을 길러다 마셨다. 보건 시설이 없어서 간단한 처지도 못 받고 병을 키우는 환자들이 많았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생활하는데다가 제 때 씻지도 못해서 피부병 환자도 많았다. 재래식 화장실은 모기 서식처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응호망과 마을의 주요 생계 수단은 바나나, 옥수수, 콩 재배인데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보다 못한 더멋진세상이 르완다에 응호망과 마을에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가장 먼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현지군병원과 협력해서 이동진료사업(Mobile Clinic)부터 시작했다. 르완다 최고의 의사들을 초빙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사랑의 손길로 겸손하게 섬겼다. 무의촌 지역이었던 응호망과 주민들은 난생처음 아파도 참고 묵혀두었던 질환들을 치료받는 기쁨을 누렸다.

2014년에는 마을에 보건지소를 건축했고, 2015년에는 조산원을 개원해서 비포장 산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출산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건 위생교육, 산모 교육, 마마마켓 보급,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및 의료보험료 지원, 지역 보건요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이어나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말라리아로 죽는 유아사망률과 임신부의 무지로 유산되는 유아 사망률이 10% 이상 줄었다. 보건요원들은 주민들을 만나서 활동할 때마다 복음을 기반으로 치유활동을 전개했고 조금씩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변화의 통로 'ECD센터'

미취학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ECD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한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흙바닥 생활이 일상이던 응호망과 마을 어린이들이 ECD센터에 입학해서 노란 유니폼을 입고, 차례를 지켜 손을 씻고, 신발을 쟁겨 교실로 줄지어 가는 모습들이 변화의 증거들이다. ECD센터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 교실 한 편에 웅기종기 모여 감사할 제목을 나누고,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함을 배우고 있다.

책을 가져 본 적도 없던 어린이들이 동화를



ECD센터 아이들과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

들으면서 감성을 키우고, 색연필을 쥐어 본 적 없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장난감을 가져 본 적 없던 아이들이 함께 블록을 쌓으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가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 학습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아이들이 변했더니 가족들도 변했다. 아이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접하고 영향 받는 것은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다.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에게 건강한 음식에 대해 설명하거나, 가족들에게 손 씻기와 식사예절을 알려주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에게 수학, 영어, 노래도 가르쳐주기도 한다. ECD센터가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변화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ECD센터 아이들은 친구들과 형제자매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러니까 서로 나눠야 해”라며 실제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고, 화를 잘 내던 아이가 “엄마 나 지금 화가 나지만 화 내지 않고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라며 배운 대로 적용해서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다.

획기적인 변화와 열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에게 “아내를 때리는 것은 죄”라고 외치는 아이의 말에 아버지

가 폭력을 그쳤다는 이야기, 교회를 떠났던 어머니가 부모정기모임을 통해 말씀을 듣고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 동네 아이들이 끼리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ECD센터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보였다. 지금은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소득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부학교를 열어서 자연농업을 활용한 농사와 양계 및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르완다의 독특한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현저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범농장 운영도 하고 있다.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에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교회가 부흥하고 주일학교가 생겨서 어린이들이 흥겹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가난한 마을을 건강한 마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보건소와 학교를 지었다. 자립을 위해 양계장과 농장도 만들었고, 마을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비록 입술로 복음을 선포할 기회는 적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간 기차여행

이촌공동체·러시아어예배 맞춤형전도집회 ‘이촌연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지난 9일, 이촌공동체와 러시아어예배가 맞춤형전도집회 ‘이촌연가’를 개최했다. 이촌연가는 2002년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겨울연가’처럼 전도집회에 참석한 전도대상자와 가족 100여 명에게 감동을 선물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맞춤형전도집회 구성부터가 독특했다. 아마 관광열차를 빌려 전도집회를 시도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도대상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기차 객실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연주, 흥미진진한 게임과 퀴즈, 생태원 관람 등의 프로그램은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지난 9일 이촌공동체와 러시아어예배가 맞춤형전도집회 ‘이촌연가’를 진행했다.

맞춤전도집회 ‘이촌연가’에 초대된 참가자들부터가 특별했다. 권현자 성도는 올해 91세인 노모(김홍래 어르신)를 모셨고, 황명덕 권사는 잘 알고 지내던 베트남 가족(빙, 투안 부부, 아들 꺽흥)을, 허 루슬란 전도사는 친누나 가정을 초대했다.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양하여라♪”
귀에 익숙한 찬양이 울려 퍼지자 권현자 성도의 어머니 김홍래 어르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김홍래 어르신은 전도대상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 그런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했고, 인상도 무척 좋았다. 김홍래 어르신은 선한 인상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신다. 며칠 전 자신의 생일에는 손수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눴다고 한다. 또 지나가다가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주려고 늘 주머니에 초콜릿과 사탕을 가지고 다니신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권현자 성도는 그 좋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권현자 성도에게 어머니 전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뽕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다. 딸의 진심이 어머니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몇 주 전부터 어머니는 권현자 성도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 권현자 성도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건이나 계기가 있게 해달라고 또다시 기도했다.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공동체에서 맞춤형전도집회를 한다는 소식이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반응도 좋았다. 함께 기차여행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셨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황명덕 권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베트남 가족(빙, 투안 부부, 아들 꺽흥)을 초대했다. 황 권사와 베트남 가족은 2008년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만났다. 당시 빙, 투안 부부에게는 1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시급하게 치료가 필요했지만 아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당시 베트남에서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3만불(약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빙, 투안 부부의 당

시 월수입은 30불(약 3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국에 베트남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달음에 날아왔다. 그때 황 권사가 빙, 투안 부부를 도와주었다.

“꺽흥이의 엄마 투안은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도 아주 특별한 가족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황 권사는 12월 둘째 주에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빙, 투안 가족에게 맞춤형전도집회 ‘이촌연가’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리고 정중하게 초대했다. 빙, 투안 부부도 황 권사의 초대를 흔쾌히 수락했다. 뜻하지 않은 열매도 맺혔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빙, 투안네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황 권사는 꺽흥이의 생명을 살린 것도 모자라 부모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선물까지 줬다.

“베트남에 돌아가면 제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황 권사님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고려인 허 루슬란 전도사는 친누나 엘레나

가정(남편 아르살란)을 초대했다. 10년 넘게 누나 가족 전도를 위해 애썼지만 조금도 받아드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다.

“누나는 기독교인들을 성경만 보는 지루한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큰 기쁨 속에서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어요.”

때마침 러시아어예배가 이촌공동체와 함께 맞춤형전도집회 ‘이촌연가’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누나가 좋아하는 기차여행을 하면서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분명했다. 그런데 난관이 하나 있었다. 누나네를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누나네 가족들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번 주만 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너무 외로웠는데 기차여행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었다면서요.”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들

이촌공동체와 러시아어예배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은 열차 승무원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다. E-train 최하정 승무원은 맞춤형전도집회 이촌연가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도 앞으로 만나는 모든 고객님들을 여러분처럼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사그라진 신앙의 열정을 되찾은 성도도 있었다. 서태구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곧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그대로였다. 서태구 성도의 아내 김혜주 권사는 남편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만을 눈물로 기도해오고 있었다.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됐다. 남편 서태구 성도가 이번 맞춤형전도집회 ‘이촌연가’에 참석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순모임에 안 나온 지 정확하게 8년 만이었다.

“남편이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되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공동체와 순식구들과 러시아어예배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11일 Mon 월요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골 1:26~27, 고후 13:5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스스

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영적으로 젖을 먹어

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영적인 생명의 나이는 유아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육신에 속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넷째, 자신을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내어맡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영적인 체험을 말씀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만큼 내어드리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환영하고 초청하는 만큼, 나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2일 Tue 화요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롬 3:23~24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핵심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큰 기쁨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양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게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종교적 액세서리같이 여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양 있고, 깨끗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칠전팔기(七顛八起) 노력’을 합니다. 분명 좋은 말이지만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 ‘정신적인 노력’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것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죄와 죄책감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리새인의 방법’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노력하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정죄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로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완전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의 손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함께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12월 13일 Wed 수요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롬 5:1~11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 은혜, 경험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화목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노력, 수고로 진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화목의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은 감성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에서 우리나라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온전한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놓고 그분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뉘어 할 기도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대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다.

셋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환란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12월 14일 *Thu* 목요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됨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1:3~6

이재훈 목사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직업이나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구속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며, 그 복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언급하면서 ‘선택’(4절)과 ‘예정’(5절)이라는 단어를 거론했습니다.

선택은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붙잡음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시점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4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고백은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구속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신앙고백입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높고, 영광스러운 지경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습니다(6절).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롬 8:15~17).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단순히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인해 주어지는 존귀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고, 만물의 영장으로 있었지만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과는 비할 수 없는 신분, 지위, 능력,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6절)입니다.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란 먼저 선택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랍고 크신 선택과 구속, 양자됨의 은혜를 찬미하기를 소원합니다.

12월 15일 *Fri* 금요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니까?

히 4:14~16, 10:19~22

이재훈 목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죄 짓기 전 아담은 완전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구속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악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하신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

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문학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저항해 본 사람만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는 이유는 죄에 타협하고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인간

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요, 변호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면서도 친밀하게 나아감을 뜻합니다. 이 담대함은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세 가지 담대함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

가 앞에서 인정하는 담대함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판단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둘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담대함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은혜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만 구하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품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트리와 대림절

성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크리스마스트리’다. 예전에는 교회와 집집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성탄을 준비하곤 했다. 누구나 크리스마스트리와 관련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좀처럼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지 않는다. 가정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백화점이나 상가, 교회에 가야만 크리스마스트리를 구경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는 특별한 분위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김정숙 목사가 크리스마스트리가 가진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정숙 목사
(서울삼성병원원목)

주일학교를 다녔던 성도들은 누구나 12월이 되면 성탄절과 관련된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를 것이다. 시골에서는 성탄행사가 마을의 큰 잔치였다. 믿지 않던 부모님들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담배냄새 나지 않도록 양치질을 하시고, 교회당으로 쑥스러운 발걸음을 하곤 했다. 자녀나 손자손녀들의 재물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가장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은 성경암송이었다.

말을 배우는 중인지라 “편편(천사)가 이르되”라고 한 마디 하고선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당황해서 말문을 닫고 서 있다가 앞에서 가르쳐준 선생님 따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며 마무리를 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다른 아이는 “오늘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마무리를 했다.

그때 그 시절 아름다운 추억들

나는 어린 시절 교회 유치원을 다녔다. 유치원이라기보다는 유치부였는데 성탄절 이브에 대한 추억이 참으로 많아서 매년 성탄절이 다가 오면 당시를 회상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

“반짝 반짝 별 비치는 그 어느 적막한 날 밤에 귀여이 귀여이 들리는 저 어린 아기 울음소리. 이 세상의 모든 죄 짐을 그 등에다 홀로 지실 오 만민의 메시야이시니 그 이름 아기 예수시라.”

“반짝 반짝 별 비치는 그 어느 고요한 날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이상한 소리 들었네. 베들레헴 향하여 떠나 곧 찾아가 만나 보~니 저 말 구유 속~에 누우신 그 아기 이름 예수시라.”

“반짝 반짝 별 비치는 그 어느 거룩한 날 밤에 동방의 별 보던 세 박사 기이한 큰 별 보았네. 황금과 유향과 또 몰약 세 예물을 드리며 절하니 오 만민을 다스릴 구세주 그 이름 아기 예수시라.”

지금 생각하면 동요를 부르는 북한 어린이의 모습이 당시 내 모습인 것 같다. 두 손을 꼭 지고 앞뒤로 흔들면서 청량음료 같은 소리



① 김정숙 목사가 버려진 인형을 이용해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② 삼성서울병원 기도실에 놓여진 크리스마스트리. ③ 최복자 권사가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를 지르며 열심히 불렀다. 매년 내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느끼게 했다.

“하얀 눈 쌓인 밤에 별도 고와라”,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하신 밤” 같은 주일 학교 노래가 참 좋았고 성탄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하던 오빠들도 성탄절 이브의 주인공이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오빠들의 우렁찬 중창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온다.

“한 촌 사람 하루는 성내 와서 구경을 하였네,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것 보았네, 한참이나 맛있게 먹다가 재채기 하였네, 줄줄 줄 빼 낸다 또 빼 낸다 아직도 빼 낸다.”

지금도 냉면을 먹을 때 이 노래가 생각나서 웃곤 한다. 어린 시절 쿠키명에서 냉면이 나온다는 노래에 걱정을 했던 순수함이며, 언니 오빠들 따라서 집집마다 새벽 송을 돌면서 웃음 많아서 혼나던 그때 그 시절 모두가 성탄절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다.

“다들 기억하세요?”

이맘 때 즈음이면 어디를 가도 반짝이는 불들이 아름답다. 크리스마스트리의 의미가 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12월만 되면 이름



답게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장사를 위해 백화점이나 상점들은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장식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산타클로스 트리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가정이나 마음에는 대림의 기대감이 식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 지없다. 기독교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심은 온 세상에 비취질 빛이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 가정과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대림을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은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것이다.

나는 사역지인 삼성서울병원 기도실 두 곳과 사무실에 매년 성탄 장식을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작은 성탄장식을 한다. 밖에서 보일 정도로 반짝이는 전등을 달아서 우리 집은 아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저녁에 귀가 하면서 아파트 한두 집에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아~ 저 집은 그리스도인 가정이네”라는 마음에 미소가 지어지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일부러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녀보아도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거나 장식을 꾸며 놓은 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삼성병원 기독교실에 오시는 봉사자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다들 기억하세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 손으로 소나무 잘라다 솜뭉치 달면서 트리를



장식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크리스마스트리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주님 성탄의 은총이 임재하게 되요.”

11월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탄 장식과 새벽송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던 그때가 그리운 이유는 바로 순수했던 그 시절의 은혜가 그림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내가 다니던 교회는 소나무를 잘라 주일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장식을 했었다. 어느 날 월남전에 다녀오신 친구 오빠가 사들고 온 현대식 트리를 놓은 적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최신식 성탄장식도 식상해졌다.

올해는 버려진 인형들을 주워다가 성탄 장식을 하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놓았다. 이 말을 들은 광현교회 최복자 권사님께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왔다.

“목사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어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었는데 작은 종소리가 들려요. 감사해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보내지는 성탄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귀한 것이 없는 풍요의 시대에 눈만 뜨면 보게 되는 화려한 장식과 환경에 짓눌려 버리지 않도록 무감각해진 영성을 바로 잡아 가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인천, 강동 맞춤형도집회 개최 ... 46명 결신

인천과 강동 온누리교회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9일 인천 온누리교회 국제부가 맞춤형도집회 ‘wow christmas’를, 10일에는 강동 온누리교회가 부모와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온리 유’를 개최했다.

인천 국제부 맞춤형도집회 ‘wow christmas’에는 남동공단 근로자와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 몽골어예배와 중국어예배, 성인공동체, 차세대는 풍성한 특수를 선보였다.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담임)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며 “참석자들 모두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인천 국제부 맞춤형도집회에 참가한 전도대상자 12명이 예수 그리스



인천 국제부 맞춤형도집회에 참석한 전도 대상자들이 활짝 웃고있다.

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바스카 형제(남동공단 근로자)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지난 10일 믿지 않는 부모님과 천호3동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도집회 ‘온리 유’를 개최했다. 배우 오미희, 최

필립,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전도대상자 38명 중 34명이 결신했다. 장정에 자매(프라미스공동체)는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하셨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세례 받고 천국 시민 되다

맞춤전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 참석자 11명 세례

40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11명이 세례를 받았다. 지난 주일(12월 1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맞춤형도집회에서 예수 믿은 성도들을 위한 세례식이 거행됐다.

그 뜻깊은 자리에 김형준 형제도 함께 있었다. 그는 명예, 재물, 성공을 쫓으며 살아오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40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에서 하나님을 만

나고 거듭났다.

이날 김형준 형제뿐만 아니라 40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두 번째 스무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신청한 18명 중 11명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나머지 7명은 12월 24일과 1월 28일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세례 받은 장윤미 자매는 “맞춤전도집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위대한 교회보다 선한 교회 되어야”

사회선교본부, 다락방장 모임 250여 명 참석

사회선교본부가 국내 10개 캠퍼스 다락방장들을 초청해서 ‘1다락방 1사역’ 비전을 나눴다. 지난 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 다락방장 모임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 등 리더십과 다락방장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1다락방 1사역 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위대한 교회보다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면서 “온누리교회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지역교회의 이름으로 1다락방 1사역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권면했다.

임찬웅 다락방장(남양주 온누리교회)은 “1다락방 1사역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 원철호 다락방장(한강공동체)은 “사회선교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장기선교사훈련학교 훈련생 모집

1월 22일까지 참가신청

Acts29비전빌리지 선교사의 영성, 리더십 등을 훈련받을 수 있는 ‘28기 장기선교사훈련학교 OSOM (Onnuri School of Missions)’ 훈련생을 모집한다. 장기선교사 훈련은 2018년 2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16주 동안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합숙훈련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2018년 1월 2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visionvillage.org)에서 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는 선교적 안목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인적 선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타문화권 교회개척, 전략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정대훈 선교사는 “장기선교사훈련을 통해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선교의 뼈대를 세워가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문의: 031-331-8182

서빙고 여성사역, ‘간사블레싱’ 개최

서빙고 여성사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간사들을 축복하는 ‘간사블레싱’을 개최한다. 간사블레싱은 12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이날 서빙고 여성사역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간사들을 위해 따뜻한 밥과 차, 포토존, 선물 준비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서빙고 여성사역본부는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있는 간사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한다”면서 간사블레싱에 초청했다.

12월 세례자

■서빙고	김용우 조한나	지승찬 170203	한국일 790308	신윤철 황은비	최기윤 150909	요셉
	김나리 890407	노윤하 151208	지영일 함정임	유아	양승민 160415	최수한 김민정
	김나정 860328	노승인 주이숙	황드보라 170104	김 리 160423	양준호 문지현	최준희 171002
	김달수 610309	백승은 170207	황기환 김지니	김종오 윤수진	이시후 160511	최한구 박혜경
	김장래 810909	백종현 정선이	입교	김리하 160424	이재환 백승정	홍가희 160416
	송근례 621217	이윤하 170608	김경민 890612	김태희 김민경	임예인 160318	홍성범 이영주
	안순자 530915	이재욱 나지영	이광현 930121	김아윤 160122	임종휘 김정연	황은찬 160113
	이재원 810327	이재성 160212	이광현 930121	김민호 김신형	장우민 160326	황호민 노유진
	이정연 670810	이경규 조미혜	■양재	김지후 160330	장성현 권청아	한소예 910117
	지선미 711016	임지유 160512	권민정 881220	김용완남궁나래	장우진 160326	
유아	황찬기 740407	임주상 신정은	김영순 600726	김하엘 151225	장성현 권청아	■대학청년부
		장하엘 160816	김희광 511031	김덕수 한진주	전운유 160316	갈렘
	김동유 151102	장현석 홍민정	신윤철 821209	박준서 170722	전승훈 안정은	유아
	김장래 김주현	장하음 160816	이성숙 550617	박주홍 안 러	정지우 170926	이은솔 170105
	김주영 160701	장현석 홍민정	정근이 540310	신슬찬 170425	정혁진 이진실	이대권 김경아



김광동 장로가 장순흥 총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더멋진세상, 한동대 지진피해 후원금 전달

NGO 더멋진세상이 한동대학교에 지진피해 복구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8일, 한동대학교에서 드린 지진피해 회복 연합예배 ‘리빌딩 한동(Rebuilding Handong)’에서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가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에게 지진피해 복구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동 장로는 “한동대학교가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의 손길로 헤쳐 나가서 더 멋진 하나님의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역칼럼

권사칼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황혜성 팀장
(아트비전)

아트비전은 2012년 결성된 온누리교회 미술인선교회이다. 전 시회, 소품전, 초청회,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아트비전은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을 맞아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카페에서 아트소품전을 열고 있다. 주제는 ‘카이로스-하나님의 시간’이다.

아트비전은 작지만 뜨거웠던 초창기 기도모임을 발판으로 교회 내외부 정기전, 특별전, 타 교회와 연합전, 작품기증, 판매수익을 통한 선교, 사회선교본부와 연계사역 등을 하고 있다. 전시사역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아트비전의 주된 사역이다. 이번 아트소품전도 그 일환이다.

전시사역은 아트비전 소속 성도들의 신앙과 목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매주 예배와 나눔,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감동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전시사역은 한마디로 ‘그림쿠퍼 신앙고백’의 자리이다. 우리의 고백이 담긴 작품들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복음전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번 아트소품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트비전을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다. ‘카이로스-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묵상했다.

스-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묵상했다.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 ‘카이로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달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감지된 영원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간의 사역들을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믿음 없는 열심으로만 쌓아오지는 않았는지, 환란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지를 되새겨 본다. 혹여 나의 목소리를 높였다면 논쟁을 멈추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오로지 그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아뢰고, 재해석하고, 가치 있는 카이로스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도한다.

하나님이 아트비전 소속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달란트인 미술을 통해 선교하고 싶은 미술인이 함께 걸어가면서 삶이 먼저 변화되고, 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엔 전시된 작품에 그 사역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를 위해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서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개최한 아트소품전 ‘카이로스-하나님의 시간’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양재 온누리교회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사회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위대하고 끝없는 사랑의 역사



황명덕 권사
(이촌공동체)

2007년 베트남 다낭시에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껍흥이라는 남자 아기가 있었다. 껍흥이네 가족은 몹시 가난해서 1천만 원(한국기준)이 넘는 치료비가 들어가는 심장병 수술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껍흥이 부모는 어느 신에게든지 “아이가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2008년 껍흥이가 13개월이 되던 해 한국선의복지재단과 만났고, 부천세종병원에서 무료로 심장수술을 받았다. 심장병으로 인해 파랑던 껍흥이의 입술이 붉은 빛을 되찾았다.

껍흥이 엄마는 병실에서 재단 직원들을 볼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진심어린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 껍흥이는 3주 동안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종종 출장길에 껍흥이네를 찾아가면 그 엄마는 여전히 눈물 흘리며 인사를 했다.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워도 껍흥이의 생명을 살려 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명절 때마다 주변의 아픈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고 있었다. 몇 년 후 껍흥이 엄마가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치원 이름을 ‘선의유치원’이라고 지어도 되겠냐며 허락을 구해왔다.

올해 2월, 나는 4년 만에 다시 베트남에 있는 껍흥이네 가족을 찾아가다. 껍흥이가 몰라보게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해있었다. 껍흥이 엄마는 3년 전 시작한 유치원이 성공해서 지금은 유치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제적 형편도 9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아져 있었다. 집도 새로 짓고, 자동차도 샀다고 했다. 9년만의 기적이었다. 껍흥이 엄마는 여전히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한 아이에게 새 생명을 준 일이 희망 없이 살아가던 가난한 가정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되었다. 껍흥이 엄마는 돈이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심장병 어린이 한 명의 수술비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은 1982년 세 여인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35년 동안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수해지역 지원, 소년소녀 가장 돕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했고, 2000년부터는 저개발국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초청수술사업, 해외 자선병원 운영, 태권도 체육관 지원, 한국어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선의를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주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껍흥이네 가족과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때마침 내가 속해있는 이촌공동체에서 맞춤전도집회 ‘이촌연가’를 개최해서 껍흥이네 가족을 초대했다.

껍흥이 엄마와 아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껍흥이 엄마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껍흥이네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셨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끝없는 사랑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의를 전하고자 행복하게 달려간다.

장로칼럼

생애 최고의 사건



김명수 장로
(분당B공동체)

2017년 12월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1부 예배는 내 신앙 생활에 한 획을 긋는 유의미한 날이었다. 시무장로를 은퇴하고 사역장로로 타 지역을 바꾸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반평생을 온누리교회 32년 역사와 함께 살아온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한다.

1986년 봄날 어느 주일 나는 옛 신동아아파트 모델하우스 가건물이었던 온누리교회 본당에 첫 발을 내디뎠다. 15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작고 평범한 공간에서 성도들이 하용조 목사님의 강해설교에 몰입하고 있었다. 예배실이 포근하고 평화로운 고향집같이 느껴졌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가 되면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하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찬양하면서 새신자들을 맞아 주셨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 있었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가족공동체의 모습이었다. 당시 나 같은 새신자들에게는 주일이 몹시 기다려졌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온누리교회 본당건물은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1987년 7월 19일 2,5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입당예배를 드렸다. 감동과 기쁨으로 벅찼던 그날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역사는 1991년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하 목사님께서 ‘성령목회’ 비전을 선포하신 일이다. 다소 생경했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뜨거워졌고, 청년들이 몰려왔다.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곧이어 1994년 하 목사님께서 ‘2천/1만’ 비전을 선포하시고,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는 말씀에 부담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2003년에는 ‘Acts 29’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더욱 구체화 하셨다. 그 결과 10개 캠퍼스, 29개 비전교회, CGNTV가 세워졌고, 900여 명(누계 1,900여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

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 목사님께서 일본 요양 중에 선포하신 ‘러브소나타’ 비전은 2007년 오키나와,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5차례 퍼졌다. 일본 교회들이 부흥했고, 복음이 열매 맺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1998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셔서 장로로 세워주신 일은 내 생애 최고의 사건이었다. 모나고 보잘것없는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다. 당회운영위원, 재정, 예산, 감사위원장으로 부르셨을 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약 20년 동안 차세대 친구들을 섬기며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기도 했다. 2010년 동경 당회운영위원회에서 동빙고 근린공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대중교회의 마중물로, 미래세대의 공간으로 공원을 재조성하는 일에 헌신하게도 하셨다.

2011년 8월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 교

회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성숙한 모습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했다. 당시 나는 청빙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훈 목사님을 제2기 담임목사님으로 모시던 일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시무장로의 자리를 떠나며 하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저는 다 죽을 것 같다가도 설교단에 서면 힘이 납니다.”

이제 제2기 온누리교회 목회자 예수바보행전을 통해 Acts 29 비전을 이루어 가고자 달려가고 있다. 이재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비전을 실현해가기를 소망한다. 나는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해본다.

“우리의 걸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고후 4:16).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계 2:10).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오시는 이

지도자 중에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 신전이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성품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충성됨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기적이 나타났다면 장차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3~4절).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집과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하니까, 집을 지은 주인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위대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 주인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집과 주인의 차이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집을 원하셨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거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 땅이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리심과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시기 위해 일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보이는

건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성전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집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일에 종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임 받는 중,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금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5~6절).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은 것은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노예 수준의 종은 ‘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쓰는 종은 ‘데라폰’입니다. 어떤 직위를 가진 나를 권위가 있고 신뢰할만한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은 그냥 종과는 다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달자’라는 의미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권세와 권리와 주인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모세는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히브리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 집행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모세는 때로 죄를 범하였으나 예수님은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죽어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정죄만할 뿐 결코 구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히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모세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1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두 가지 명칭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 율법의 대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끊임 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요,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소망과 확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금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미리 증언하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베트남 온누리교회 소식 2

베트남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공인된 베트남 교회를 살리는 것이 영적으로 척박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력을 기울였다. C&MA 소속 교회 2곳을 매년 섬기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13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 교회들이 있는 곳은 호치민에서 3시간 20분 떨어진 농촌 지역이다. 참고로 베트남의 교회는 본교회(독립교회)와 본교회에서 먼 구역 모임이 발전한 지교회(기도처, 구역교회) 형태로 발전해 가는 시스템이다. 1개의 본교회가 몇 개의 지교회를 만들고 그 지교회가 나중에 독립교회가 되는 형식이다.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기도처가 구역교회로, 구역교회가 본교회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올바른 시스템이다. 현재 베트남 온누리교회는 13개 독립교회를 섬기고 있다. 13개 독립교회의 지교회 수는 처음에는 7개였지만 우리가 섬긴 이후 28개로 늘어났다. 그 중 상당수는 소수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세워졌다.

베트남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작한 일은 교회 내부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경과 찬송가 보급, CGNTV 안테나 설치, 청소년 큐티집 **〈새벽나라〉**와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베트남어 번역 및 보급, 베트남 교회 리더십 위한 일대일 세미나 개최, 여름성경학교와 크리스마스 전도집회 후원 및 참여 등을 했다. 내부적인 성장을 꾀한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장학 사업, 가난한 자 돌봄, 수해 의연금, 지교회 설립 및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자전거 보급 등의 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베트남 온누리교회는 현지 교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돕는 지역이 복음화 되도록 협력할 것이다.

베트남은 지금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선교의 초점을 농촌 지역에서 호치민이라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꿈꾼다

거대도시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호치민 시내와 그 주변도시에서 복음이 소외당하고 있다. 호치민 시내의 C&MA 소속 교회 수는 본교회와 지교회를 합쳐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인구 180만 명의 닥락성이라는 지역은 교회가 300개나 된다.

이제 베트남 선교는 도시 복음화에 더 많은 정성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 도시화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호치민으로 유입되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호치민에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도시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현지 교회와의 협력(연합)사역, 주일 학교 및 청소년 전도집회 후원, 지교회 설립 후원 등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믿음의 청년들이 베트남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사회 공헌사역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

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교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베트남 땅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다. 베트남 온누리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현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낮은 마음으로 섬길 뿐이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베트남 온누리교회가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주면 좋겠다. 베트남 온누리교회가 베트남에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협력이 절실하다.



이정국 집사
(베트남 온누리교회)

제1176호 | 2017년 12월 17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8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3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동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보스턴
이훈 목사

-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신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광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를랜드**
유원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tbasi
Chuu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HA DAIA-
MOND 2F
- **고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만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S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무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i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 ◆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8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3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섬기는 분들

- ◆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8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3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보스턴
이훈 목사

미북부

- **포틀랜드**
이광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를랜드**
유원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중동

- **아부다비**
김태만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섬기는 분들

- ◆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8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3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해외 온누리교회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동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소천

- 12/7(목) 분당A 이응송 성도 방부상 고 감경원
- 12/8(금) 일산 감정은 성도 부친상 고 김휘동
- 12/8(금) 노원 고 이동례 권사
- 12/9(토) 이촌 박소연 성도 부친상 고 박종섭
- 12/10(주일) 관악금천 이해원 집사 부친상 고 이택용
- 12/10(주일) 용산 윤석환 성도 부친상 고 윤병철
- 12/11(월) 동대문중앙 허분희 권사 부친상 고 허할
- 12/12(화) 브릿지33플러스 최성문 성도 부친상 고 최상현
- 12/14(목) 강남B 최예경 성도 부친상 고 최동환

온누리신문

- 등록번호 다-3802호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문창국
- 편집부장: 김남원
-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바이올린 레슨 및 노트북후원 모집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책 읽어주는 이웃사촌 모집
신청자격: 20세 이상 책임기,만들기 활동자(개인,단체) 활동내용: 책 읽기, 간단한 만들기(주1회 1시간) 문의: 원혜림 사회복지사(3407-2700)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 송년음악회 / 발표회 관람 희망자 모집
내용: 2017 한 해를 마감하는 어르신들의 공연 (하모니카, 합창, 방송-리인댄스 시물장구 등) 일정: 12월 21일(목) 10:30-12:00 / 13:00-15:00 신청인원: 200명 문의: 권순규 사회복지사(796-6100)
-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사제 다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0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소미 사회복지사(070-4340-2599)
- 반동코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란 팀장(02-985-3609)

제정

-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의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희망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문의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진화상담, 위기사이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안락사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티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 일대일양육자반(이상기 장로반)
일시: 18년 1월 7일~4월 22일 매 주일 오전 8시 1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402호
신청: iSchool 홈페이지
- 일대일양육자반(김효구 장로반)
일시: 18년 1월 14일~4월 29일 매 주일 오전 8시 10분
대상: 초등자녀를 둔 3040세대 성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402호
신청: iSchool 홈페이지
- 일대일양육자반(이진숙 권사반)
일시: 18년 1월 7일~4월 22일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이스라엘홀
신청: iSchool 홈페이지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통해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소망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서서평의 길을 따랐던 또 다른 '서서평들'의 숨겨진 이야기

서서평 특집 다큐멘터리
**서서평과
서서평들**

배우 윤안나와 함께 이 땅에 서서평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봅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싶은지...”

내레이션 명세빈 출연 윤안나 방송 오늘 오전 10시 30분 재방 12/19(화) 오전 9시 30분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